

야 전대 룰전쟁...권리당원 규정·반영비율 '뇌관'

당비 6개월 내야 권리당원 투표 친명 "3개월로" 친문 "헌행대로" 단일지도체제 vs 집단지도 전환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하기도 전에 계파 간에 '룰의 전쟁'이 시작됐다. 2년 뒤 총선의 공천권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조금이라도 전대 룰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세팅하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오랫동안 주류였던 친문(친문재인)계는 대체로 현행 당규를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당의 변화에 맞춰 룰도 바뀌야

한다는 태도다. 가장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대목은 투표권을 얻는 권리당원의 자격 요건이다. 현행 당규는 최소한 6개월 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개딸' (개혁의 딸)로 불리며 3·9 대선을 전후해 입당한 친명 성향의 당원들은 투표권을 얻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친명계는 당규를 개정해 이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요구를 수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친문계는 '경기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것은 당의 혼란을 더 가중할 뿐'이라며 당규 개정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권리당원 자격 요건은 투표 반영 비율과도 연결된 문제다.

민주당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의 비율로 가중치를 매긴다. 그만큼 대의원의 영향력이 큰 셈이다. 전대 출마자가 다수일 경우 이를 컷오프하는 과정에서 대의원의 의중이 중요하다. 대의원은 현역 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현재 당내에서는 친문계 의원이 수적 우세를 점한 만큼 대의원의 성향도 이와 유사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친명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친명계의 시각이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국회의원이 대의원을 임명함으로써 손쉽게 계파정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며 "주류 대의원이 컷오프

면 이준석 같은 젊은 정치인이 나올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의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줄이자는 주장이다. 이에 친문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역에서 30~40년간 활동한 대의원, 권리당원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며 "투표 반영비율을 조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뇌관인 지도체제의 경우 친명계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친문계는 당규를 바꿔 집단 지도체제를 세우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지도체제 하에서는 당 대표자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 치른다. 집단지도체제 하에서는 당 대표 후보 중 1위 대표직을 차지하고 득표 순서에 따라 최고위

원이 결정된다. 친명계는 단일 지도체제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표직에 오르면 강력한 권한을 쥐고 당을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견제해야 하는 친문계로서는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이 유리한 상황이다. 룰의 세부사항마다 이해가 엇갈리는 탓에 전대를 관리해야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고민도 커지는 분위기다. 비대위원장에 선임된 이상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대에 출마할 선수들이 합의하든지, 당내 구성원의 60~70% 이상이 동의해야만 룰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선불리 룰을 바꿀 수 없다는 원칙을 이야기하면서라도 다수의 동의를 전제로 변경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보이는 용산공원 부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부지가 10~19일 열흘간 일반 국민에게 시범 개방된다. 이번에 개방되는 곳은 신용산역에서 시작해 장군속소와 대통령실 남측 구역을 지나 스포츠타워에 이르는 직선거리 1.1km 대규모 공간이다. /연합뉴스

당정대 오픈 플랫폼 '이달 발족'

국민의힘, 친운 세력화 시동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국정운영의 정책 비전과 정보를 공유하는 '당·정·대' 모임을 만든다. 이 모임은 국민의힘 내 친운(친윤석열) 그룹이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운 그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뒷받침을 전면에 내걸고 당내 구심점 확보를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 해석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 의원 30여 명이 이달 중 당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을 발족한다. 국정 현안과 정책을 주제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련 부처 장·차관, 대통령실 관련 수석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성격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현안과 정책 정보,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의원들은 민심과 여론 동향을 대통령실·정부에 전달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선 '윤핵관'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대표 격인 3선의 장제원 의원과 김정

재·송석준·이용호·이철규·박수영·배현진 의원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친운' 초재선 의원이 주축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친운 그룹이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윤핵관' 의원들이 구심점이 돼 친운 주류의 당내 입김이 강해질 경우 향후 당권 경쟁과 차기 총선, 대선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도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이런 가운데 장 의원을 제외한 김정재·송석준·이용호·이철규·박수영·배현진 등 초재선 의원들은 모임의 사실상 '운영진' 역할을 맡아 주제 기획과 선정, 토론·발제자 섭외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첫 해외순방 '나토행'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으로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후 미국을 먼저 찾았던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다자 정상외교'로 순방의 첫 발을 떼는 셈이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 비회원국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처음 초청했다. 미국·유럽 중심 집단안보 체제인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에 초대장을 보낸 것과 관련,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위협대응 방안을



담은 새로운 '전략개념'이 채택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 계기에 한미·한일·한미일 정상회담 등 별도 정상외교 일정도 소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 정상은 지난달 첫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협력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북한 핵실험 징후가 점차 뚜렷해지는 상황을 평가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판결·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로 오랜 갈등을 빚어온 한일 정상이 마주 앉을 것인가다. /연합뉴스

한 총리 "여야정 '정기적 협치체제' 만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여야 협치를 강조하면서 "당 대표들과 대통령의 여야정 협의체, 필요하면 국무총리와 원내대표 단계에서의 제도적인(협치) 장치들 야당과 협의해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모두발언에서 "협치를 위한 정상적인, 정기적인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치를 위해 여야와 정부가 정기적으로 만나 협의를 틀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 총리는 지난달 30일 최종 의결된 현재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6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야당이 여당의 추진에 대해 협조를 했고 이것은 또 하나의 협치



의 사례를 만든 것이라고 본다"면서 협치의 사례로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추경에 대해 "이번 추경은 차입을 하지 않는 최소한의 재정 지출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며 "추경은 한국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0.2%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추경을 계기로 "다소 원칙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재난지원금을 끝내고, 보상 법안에 의해 투명하고 온전한 보상의 길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